

월드컵 ‘손’ 못 쓰나...

축구 국가대표 에이스 손흥민 안와골절 수술 ... 한 달 쉬어야 카타르 월드컵 16일 앞두고 초대형 악재 ... 벤투호 16강 ‘떡구름’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의 안와 골절과 수술이라는 ‘청천벽력’이 한국 축구에 떨어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은 3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안와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골절된 왼쪽 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수술 뒤 손흥민은 구단 의무진과 함께 재활에 들어갈 것이다. 추가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알려겠다”고 전했다.

수술 뒤 재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의학계에 따르면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하는 상황여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준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홍종원 교수는 “손흥민은 안와 골절이나 안면골 골절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든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세병원 성형외과 조상현 원장은 “손흥민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보지 않은 이상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시 의료진이 수술을 결정할 것으로 볼 때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최소 4주 진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떤 때가 부러졌건 손흥민이 당장 이날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12월 1일까지는 쉬어야 한다.

조별리그 우루과이와 1차전은 11월 24일, 가나와 2차전은 11월 28일에 치러진다. 최종전인 포르투갈전은 12월 3일에 열린다.

안와 골절이라면 2차전 뒤에야 전연료 복귀할 수 있고, 안면골 골절이면 아예 월드컵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손흥민은 전남 마르세유(프랑스)를 상대로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상대 선수와 안와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고 27분 만에 교체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구단 측과 전화를 통해 구단 공식 발표 전 상황을 전달받았다”면서 “이번 주 안에 수술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거듭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손흥민은, 2전 3기의 무대로 여겨진 카타르 월드컵에 불의의 부상으로 아예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손흥민은 전날 마르세유전 23분 중원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다 마르세유 찬셀 엠베바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쳐 쓰러졌다.

손흥민의 코에선 출혈이 발생했고, 코와 눈 주위가 크게 부어올랐다. 의료진과 상태를 확인한 손흥민은 27분째 그라운드를 벗어나 곧장 터널로 향했다.



안와 골절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한국 축구 공격 핵심·정신적 지주 부재 중...벤투호 플랜 B는? 왼쪽 공격 황희찬·최전방 스트라이커에 황의조·조규성 예상

한국 축구의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토트넘)이 불의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눈앞에 둔 벤투호의 전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토트넘 구단은 3일(한국시간) 전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마르세유(프랑스)와 경기에서 손흥민이 왼쪽 눈 부위가 골절돼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 대표팀 전력의 50%” 가까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온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왼쪽 측면이며, 때에 따라 최전방 공격수로도 활용됐다. 경기 흐름에 따라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프리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손흥민을 쓸 수 없다면 벤투호의 ‘카타르 플랜’에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이 막히면 왼쪽 공격수 자리에는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불박이로 나설 전망이다.

또 최전방에는 스트라이커 전문 자원이 황의조(울림피아코스)나 올 시즌 K리그1 득점왕 조규성(전북)이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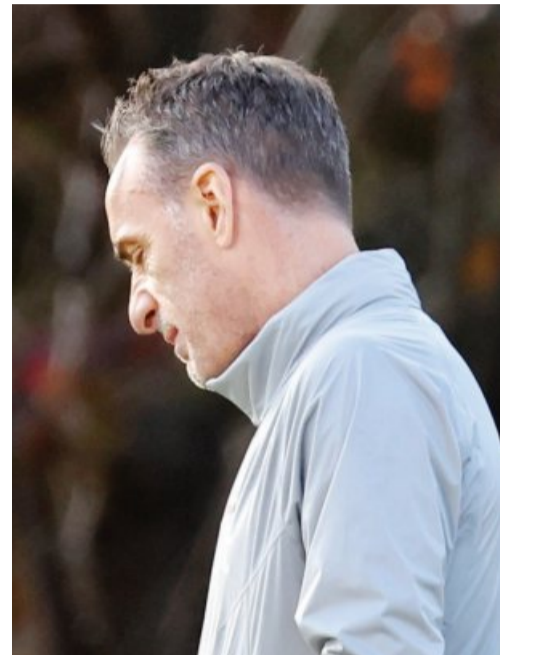
만약 벤투 감독이 4-4-2 전술을 사용한다면, 황희찬을 전방으로 끌어올려 황의조나 조규성의 쪽으로 세울 가능성도 있다.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손흥민이 관여했던 포지션에서 전술적 유연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가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센트럴 소니’ 전술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빠지면 공격 자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선발과 벤치의 경계에 있던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등 2선 자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벤투 감독

소속팀에서 좀처럼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황의조 역시 마찬가지다.

손흥민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만큼, 그동안 벤투호의 ‘불박이 원톱’으로 활약한 황의조가 파괴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손흥민이 그동안 전술적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주장으로서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기 때문에 벤투호가 잃는 타격은 더 크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손흥민은 대표팀 내 존재감이 워낙 큰 선수”라면서 “꼭 선발이 아니더라도 후보로 팀에 기여할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벤치에서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손흥민이 아예 1분도 안 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종국 감독이 지휘하는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단이 3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창학 야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회의 캠프 ... “장점을 과감하게 어필하라”

KIA, 제주도에서 마무리 훈련 미완의 대기들로 꾸러 감독 지휘 키워드 ‘원석 찾기’

“과감하게 장점을 어필하라.”

KIA 타이거즈가 제주도에서 2023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KIA는 지난 1일 제주도 강창학 야구장 일원에 캠프를 마련하고 마무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이 지휘하고 1군 코칭스태프가 보좌하는 캠프는 ‘원석 찾기’가 키워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 올 시즌 1군에서 뛴 선수는 투수 김유신, 장시수, 송후섭과 포수 김선우와 신병수, 내야수 임석진, 외야수 박정우 정도다. 그나마도 1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는 김유신, 임석진, 박정우뿐이다.

여기에 7명의 2023 신인 7명까지 이번 캠프는 ‘미완의 대기’들로 꾸러졌다.

선수 전력 차가 큰 KIA 입장에서는 마무리캠프를 통해 바닥부터 다지면서 ‘원석’을 찾겠다는 계획.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은 내년 에리조나 스프링 캠프 합류를 1차 목표로 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캠프가 진행되면

서 선수단은 4일 첫 휴식을 취한다.

캠프 시작과 함께 야간 훈련은 물론 강도 높은 훈련을 전개한 김종국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고 땀이 더 나고 온 것 같다”며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선수들이 힘들어도 티 내지 않으며 잘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는 캠프다. 1군 코치들과 처음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많은 만큼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엑스트라 훈련 등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김종국 감독은 “스프링캠프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다. 그 안에 들게끔 노력을 더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다”며 “스프링캠프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년 시즌 퓨처스 성적을 통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김종국 감독은 선수들에게 ‘장점 어필’을 주문했다.

그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는 자세는 다 돼 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이다.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그 장점을 보여주고 한다”며 “타격에 자신 있으면 타격을, 수비 자신있으면 수비에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발 빠르게 주루 자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 아직은 배울 것도 많고, 경험이 필요한 선수들이지만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장점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캠프를 통해 퓨처스 선수층을 강화하고, 1군에서 활약하는 선수까지 만든다면 KIA는 최상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수들이 “훈련이 힘들다. 몸이 녹는 기분이다. 내일 휴식일인데 방에서 꼼짝 안 하고 있을 생각이 다”고 말할 정도로 첫 단부터 바쁘게 캠프가 돌아갔지만, 김종국 감독은 더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김종국 감독은 “더 강하게 체력훈련을 진행할 생각이다. 제주도 캠프에서 기초 체력훈련을 많이 시킬 것이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술을 습득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강해야 집중력이 안 떨어진다. 지금은 강하게 해야 할 시간이다”고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